



정교회주보

제2566호

2026년 3월 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 있는 성 베드로 동굴 성당. 전승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곳에서 모였다고 한다.

(사순절 제 1 주일)

정교 주일

성 에브도기아 수녀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5)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정교 주일 찬양송 22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223
- 사도경 : 히브리 11,24~26; 32~40 223
- 복음경 : 요한 1,44~51 137

* 정교 주일 성상 행렬 224

[9회] 바울로 선교의 의미

사도 바울로에게 선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전례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의 직무를”(로마 15,16)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선교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되는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었다.

그의 선교 열정은 언제나 미지의 땅, 곧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로마 15,20)을 향했다. 이는 다른 이가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뿌리내리려는 사도적 사명이었다. 그는 복음 선포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

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토 전 9,16)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 끝까지 걸음을 옮겼다.

또한 바울로는 복음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비웠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처럼 다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린토 전 9,22)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바울로의 선교는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낸 거룩한 헌신이었다.

인내에 대하여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인내는 우리 삶에 시련과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죽음이 찾아올 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왜 하필 저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곧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만 슬픔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이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리브가 으깨지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시련을 통해 정화됩니다. 마치 도가니 속에서 정련되는 금처럼 말입니다.

대리석이 조각가에게 “왜 나를 때리십니까?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각가는 “나는 네가 형태 없는 덩어리에서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다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빚으시기 위해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느님은 우

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히브리 12,10 참조). ‘십자가’ 없는 거룩함, 즉 시련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히브리 10,36 참조). 우리의 본보기는 많은 고난을 겪은 옅과 모든 성인들입니다. 특히 인내의 모범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바라보셨던 성모님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인내를 낳는다.”(로마 5,3 참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디에서도 힘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인내의 힘을 하느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루가 6,48)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1고린토 10,4).

옴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옴기를 읽어왔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 책을 대했고, 고통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곱씹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매번 읽을 때마다, 그토록 엄청난 고통에 짓눌리고서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는, ‘하느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거의 믿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제게는 옴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오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옴 이야기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네 살 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홀로 인도하던 한 아버지에게서였습니다. 그분은 정교회 사제였습니다. 그분의 아이는 얼마 전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비통함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 보였습니다. 다른 두 자녀도 중태로 병원에 있었고, 아이들의 엄마 또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버지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대해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에는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마치 배의 돛 인양 한쪽 손으로 꼭 쥐고 있었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관이 무덤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무덤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을 굽혀, 마치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온 힘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과 하느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였습니다. 또한 그분을 지탱해주는 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디, 어떤 인간적인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가족을 위해 하느님께서 위로와 돌봄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던 것, 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옴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옴기 1,21-22)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4)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6) 오후 6시 제 2 성모 기립 찬양
(각 성당 예배는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도서 소개



성찬 - 신성한 감사의 성사, 그 영원한 신비 | 콘스탄티노스 사카리디스 수도대사제 지음 | 마은영 마그달리니 옮김 | 정교회 출판사 | 176쪽 | 12,000원

1997년에 발간된 초판의 개정판입니다.

알림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사목 방문

지난 2월 19-22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일본에 사목 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금요일에 대만과, 토요일에 성찬예배 및 영혼토요일 추도식이 있었고, 도쿄에서는 주일에 성찬예배 및 바실로피타 행사가 있었습니다.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다음 주일(3월 8일), 성찬예배 후에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잔틴 성화 세미나 안내

우리 대교구에서는 그리스 성화작가인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를 초빙하여 따띠안나 서미경 성화작가와 함께 비잔틴 성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전공자,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초급 및 고급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장소: 한국 정교회 대교구

-기간: 6월 1일-30일 /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수강료: 2,000,000원

-수강 등록: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요청사항 등을 기재하여 대교구 메일(orthodoxkorea@gmail.com)로 3/2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유지재단)

자세한 사항은 대교구 사무실(02-362-6371 또는 010-3088-8878 또는 상기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정교회는 모두에게 속해 있지만,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어머니 교회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부활하는 교회'로서, 결코 소심함이나 민족적 이해관계라는 기준으로 교회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힘을 통해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온 세상의 정교회 신자들과 민족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섬기며, 흔들림 없는 자세와 침묵, 그리고 자기 헌신으로 봉사합니다."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